

# “도민 혈세 낭비없는 사업” 한 목소리

### 도의회 문건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신규 사업 등 필요성·타당성 세밀분석 질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운)는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85억 원보다 4억 3,000만원 증액된 689억 3,000만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4억 9,000만원 보다 4억 7천만원 증액된 999억 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22억 7,000만원보다 19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16억 2,000만원이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73억 6,000만원보다 248억 4,000만원이 증액된 3,12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하여 정호운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들은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세밀히 분석 질의하는 등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다했다.

정호운 위원장(전주1)은 전주오피스 국제태권도대회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늦게 준 문체부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전라북도 가정들이 전국평균보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새만금 오토&레저 캠프소를

5년간 추진할 계획이라면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전주국제오피스 국제태권도대회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려면 최소한 7.6일까지는 추경성립 전을 받았어야 하는데 7.20일에 받았으면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군산 GM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하나하나씩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구축사업' 등 한꺼번에 추진하다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내인권 의원(김제2)은 도립국악원의 구조조정이 분실됐기 때문에 내

진성능평가를 위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임을 지적하며 다른 시설들도 구조조정이 관리될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관련하여 폭염대책비를 추경성립 전에 집행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초융합 HR 기술개발사업'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해선 설명서에 표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예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계속사업 중에 본예산에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진성 기자

##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는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조정실, 인권센터, 감사관, 대외협력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시의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전라북도 재정운영의 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예비비를 1천억원 이상 편성한 것에 대해 너무 과다하지는 않은지 검토할 것을 지적하고 '전북 빅데이터 허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도민들이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연도별 순

세계잉여금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세수추계와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수립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줄여나갈 것을 전했다.

박용근 의원(정수)은 전북도 인구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108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과 관련 그동안 6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투입했는지 질의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세계패러다임 관련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수 증대에 힘쓰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각 시·군에서 도에 반납하는 도비 반환금이 123억원으로 막대하고 매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신청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반환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유서 공개... “특검의 표적수사 유감”

### 노회찬 “경공모서 4000만원 받아... 청탁·대가 없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3일 숨지기 전 유서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 의원의 유서 일부를 공개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노 의원은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적공진화모임’(경진모)으로부터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면서도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며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죽음을 안시했다.

노 의원은 특히 유서에서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며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을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죄송할 따름”이라고 심경



### 정의당 긴급회의 결과 발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 긴급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을 남겼다.

그러면서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며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을 향해서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

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오후 장례식장에서 긴급회의를 통해 노 의원의 장례 형식은 ‘정의당장’으로, 기간은 5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발인은 27일 예정이며 상임장례위원장은 이정미 대표가 맡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장지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내일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또한 각 시도당 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끝으로 본질적 목적이 부합하지 않은 특검의 노회찬 표적 수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3일 제355회 임시회 상임위 제4차 회의를 갖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농축수산물품목,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4억 6천만원보다 7억 1천만원이 증액된 261억 7천만원이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4억 6천만원보다 16억 6천만원이 증액된 48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축수산물품목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92억 5천만원보다 69억 8천만원

이 증액된 6,259억 3천만원이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574억 9천만원보다 133억 7천만원이 증액된 7,708억 6천만원으로 편성됐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23억 2천만원보다 238억 1천만원이 증액된 961억 3천만원이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67억 7천만원보다 406억 9천만원이 증액된 2,174억 6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의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확정

### 내달 4일 우석대 실내체육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성환 전북도위원장)가 23일 1차 준비위원회를 열고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전북 합동연설회를 8월 4일

(토) 오후 4시 우석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대의원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행업체 선정은 24~25일(2일간) 도당 홈페이지(www.themiripj.com.kr)를 통해 공모하며 입찰방식은 제안 평가를 통한 업체 선정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무주 2018 나래천 물축제!

불꽃놀이, 물총놀이, 물만남물축제!

2018. 07. 27(금) - 07. 29(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일원

주최·주관 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 축제일정          |       | 요일별  | 행사명           | 장소    |
|---------------|-------|------|---------------|-------|
| 일시            | 시간    |      |               |       |
| 7월 27일<br>금요일 | 11:00 |      |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 수중축구장 |
|               | 16:00 |      | 무주군 동아리 공연    | 메인무대  |
|               | 18:40 |      | 래시가드 패션쇼      |       |
|               | 19:00 |      | EDM 파티        |       |
| 20:00         |       | 영화상영 |               |       |
| 7월 28일<br>토요일 | 11:00 |      |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 수중축구장 |
|               | 16:00 |      | 전국퍼포먼스댄스대회    | 메인무대  |
|               | 18:00 |      | 식전공연          |       |
|               | 19:00 |      | 개막식           |       |
|               | 20:00 |      | 축하공연 [홍진영]    |       |
|               | 20:40 |      | 불꽃놀이          |       |
| 7월 29일<br>일요일 | 16:00 |      | 전국배틀댄스대회      |       |
|               | 20:00 |      | 영화상영          |       |